

“방사선의 4배 치료효과”

해면동물서 간암치료 물질 확인

해수부-삼성서울병원연구팀
Agelas 추출물로 치료 병행
암세포 억제·사멸 효과 확인



해면동물 아겔라스(Agelas). /연합뉴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바닷속 해면동물서 간암 치료 증진 물질을 확인했다. 전 세계 간암 치료제 시장인 약 1조2000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향후 해양생물을 활용한 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열대 바닷속에 서식하는 해면동물인 ‘Agelas’에서 추출한 물질이 간암의 방사선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융복합 바이오닉스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 성과로, 삼성서울병

원 방사선종양학과 박희철 교수연구팀은 해수부를 통해 확보된 해면동물 Agelas 자원을 활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Agelas의 추출물을 간암 세포에 투여한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사선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추출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사멸 효과가 탁월한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방사선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사멸

률이 17%였으며 또 다른 해면동물인 ‘Coscinoderma’ 추출물을 투여한 후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사멸률이 23%로 나타났다.

반면, Agelas 추출물을 투여한 후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사멸률이 69%로 나타나 방사선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17%)보다 4배 정도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Agelas 추출물에서 확인된 암세포 증식 억제 및 사멸 물질을 분리하여 독성 및 임상실험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박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해양생물 유래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코트라, 파주 DMZ서 외국인투자기업 초청행사

코트라(KOTRA)가 경기도와 공동

으로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 DMZ에서 주관 외국인 초청 한국 홍보 행사인 ‘제 25회 겐투노우코리아’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등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슬베이코리아, 한국후지제록스 등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 외신기자, 외교사절 및 가족 총 4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임진각 자유의 다리 견학 후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와 제 3 땅굴을 체험하고,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코트라

현대홈쇼핑 “태국 진출 항공료·숙박비 지원”

주방·뷰티 등 20개 중소기업과
‘해외시장 현지화 조사단’ 진행



현대홈쇼핑 대만 현지화 조사단 프로그램.

현대홈쇼핑이 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시장 개척 전도사로 나선다.

현대홈쇼핑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해외시장 현지화 조사단’ 프로그램을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프로그램 참여 모집 공고를 내고, 상품의 경쟁력·태국 현지 시장 판매 적합성 등을 평가해 주방·뷰티·미용·생활 부문 중소기업 20곳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전 중소기업에 태국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를 전액 지원한다. 홈쇼핑 업계에서 자사 해외 네트워킹과 연계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건 이번 현대홈쇼핑이 처음이다.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중산층이 두터운 신흥 시장이다. 또한 한류 영향으로 국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현대홈쇼핑도 지난 2016년 태국 방송통신 1위 기업 인터치그룹 자회사인 ‘인터치미디어’와 함께 ‘하이(HIGH)쇼핑’ 현지 법인을 설립해 TV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현대홈쇼핑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코트라(대만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태국 현지 온·오프라인 바이어, 현대홈쇼핑 태국 법인 ‘하이쇼핑’ 소속 MD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참가 기업들에게 1:1 맞춤형 상담 및 태국 유통시장의 트렌드와 상품 수출 노하우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산신선 기자 tree6834@

궤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경고그림’ 부착

시안 12개 확정... 12월 23일 시행
기존 일반담배 경고그림 전면교체



궤련형 전자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 시안. /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아이코스·글로·릴 등 궤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의견은 행정예고된 궤련 및 궤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반대의견

은 궤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궤련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궤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궤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궤련형 전

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식약처 발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궤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용 기자

중소 음부즈만, 농어업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선다

규제·애로 27건 부처에 건의

중소기업 음부즈만이 농어업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섰다. 침체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농어업 관련 규제와 애로 27건을 농림축산식품부(17건), 해양수산부(5건), 기획재정부(2건), 환경부(1건), 국토교통부(1건)에 각각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된 내용으로는 ▲귀농인 지위에 대한 규제 완화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범위 확대 ▲농가부업소득의 면세금액 확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입목 벌채도 허가행위에 포함 ▲농업

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농업법인 지원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고질적인 것들로 농어업분야 신산업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도 꼽는다.

농지 사용 목적을 농산물 생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농민이나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에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영농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

실제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셀러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A농업법인의 경우 최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입 농산물을 부

재료를 첨가해 납품할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외국산 농산물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 대비 7.2%로 매우 적고, 대체할 국내산 농산물이 없어도 행정관청은 해당 시설물에선 이를 제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목제조 보고를 반려했다.

식물공장, 곤충산업 등 농어업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역시 정립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도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그동안 식물공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농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해왔다. 또 곤충산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결과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스러웠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대목동병원, ‘틀니의 날’ 건강강좌 개최

26일 틀니 관리 법 등 무료 강연



대해 강연한다.

이대목동병원 치과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의학관 A동 212호에서 ‘틀니의 날’을 기념해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강강좌는 조영은 이대목동병원 치과보철과 교수(사진)가 강사로 나서 ‘틀니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에

이번 강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치과 보철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전국 중소기업 CEO 600여명 참가 ‘리더스포럼’

제주 롯데호텔서 21일부터 사흘간

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업계 최대 행사인 ‘2018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리더스포럼은 올해가 12번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전국의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명이 참가한다

기조강연을 맡은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주제로 개막 첫 날 포럼의 문을 연다.

22일 개최되는 ‘중소기업 현안 정책 토론회’에선 ‘협동조합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학계·업계·연구계 등 전문가가 모여 6.12 북미회담 이후 전개될 다양한 방식의 남북경협과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김승호 기자